

마을전자상거래 농촌에 활력

익산시, 농산물 인터넷 판매 대행... 광고비 등 비용 지출을 360여 농가 참여, 판매액 15억 돌파... 작년 대비 2배 ↑

코로나19로 온라인판매가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농산물 인터넷 판매 지원 사업인 익산시 마을전자상거래가 관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들의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마을전자상거래는 지역 농산물의 인터넷 판매를 익산에서 대행해 주는 사업으로 광고비, 수수료, 택배비, 상품페이지 제작 등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360여 농가가 개별 또는 공동판매 형식으로 참여했으며 판매금액은 15억원을 넘어 작년 매출액 6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마을단위로 공동출하를 통해

가격경쟁력과 충분한 물량확보로 수출한 판매수익을 올린 마을들이 있어 이웃 농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합라에 소재한 탐고지마을은 10개 농가가 공동출하한 '뒤안마을' (일명 마늘마을)을 2개월 동안 생산 판매해 3천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강승희 작목반장은 "수고와 노력한 만큼 판로확장을 안하고 제값 받고 팔수가 있어 고맙다"고 전했다.

또한 상당면 수산마을은 고품종농이 생산한 '검은콩 서리태'를 7백만원 어치를 판매하여 7개 참여 농가들이 소소한 수익을 맛볼 수 있었다.

올해 처음 참여한 김정현 수산마을

이장은 "소일거리의 적은 양이지만 농가 공동으로 출하하여 수익을 내니 참여농가들이 매우 만족해 한다"면서 "가을에는 고추 등 다른 농산물도 공동출하할 계획으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익산시는 참여농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자체 소망물 활성화 및 1인 유튜브방송 활용 홍보 등 다양한 방식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마을전자상거래 지원사업을 통해 IT를 활용하여 농산물 판매경험을 마련해줌으로써 지역 농가들의 자립적인 판매역량을 갖추게 하여 소득증대 및 마을 활력 회복을 통해 생기 넘치는 농촌 마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김대환기자



군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6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과 연계해 스마트팜 전문 이론교육 및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군산시,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전문교육

농식품인력개발원 연계... 10월까지 이론교육·현장실습

군산시가 영농기반 및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시설운영 역량을 키우기 위해 스마트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6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과 연계해 스마트팜 전문 이론교육 및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팜 전문교육은 대야면 보덕리 국방부 부지에 신축 중인 '경영실습 스마트팜' 임차인 선정자 및 응시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식 전 모종 선택, 육묘관리 등 작물 재배기술, 스마트기기 운용, 온실 관리 등의 이론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이후 경영실습 스마트팜에서 3개월간 현장실습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장실습 과정에서는 스마트팜 전문 컨설턴트의 현장 지도와 자문을 받으면서 영농을 하게 되어 교육생들은 스마트팜을 눈으로 보고, 막연하게 느껴지던

기술들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실질적인 스마트팜 전문교육을 받게 된다.

문영엽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차별화된 세계 농산품과 경쟁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수밖에 없다"면서 "스마트팜 등 차별화된 새로운 기술이 보급되는 중요한 시기에 청년농업인들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미래 농업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해 6월, 대야면 보덕리 일원 국방부 부지를 매입해 규모화·집단화된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청년농업인 유입을 위한 경영실습 공간을 마련한 바 있다.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은 오는 8월 준공예정인 후 준공 이후 스마트팜 임대운영에 들어 청년농업인에게 시설운영 운영과 기술습득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군산=김판곤기자

지역 소식통

6.25 참전 유공자 20명 익산시, 무공훈장 전수

익산시는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16일 감사 메달 및 무공 훈장 전수식을 가졌다.

시청 상황실에서 이루어진 이날 전수식에서 6.25전쟁 유공자 20명에게 6.25전쟁 70주년 기념 감사메달을 전달하고, 6.25전쟁 참전자에 대한 무공훈장 찾아 주기를 통해 발굴된 참전유공자 1명에게는 유족을 통해 회랑 무공훈장을 전달했다.

6.25참전유공자 감사 메달은 전쟁 70주년을 기념하여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이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무병장수를 상징하는 '순근'으로 특별 제작되었다.

무공훈장 대상은 전사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 선양을 위해 국방부와 육군이 추진하는 사업을 통해 발굴되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행사를 취소하고 이번 전수식으로 아쉬움을 대신했다.

/익산=정왕원 기자

군산시 "신증후군 출혈열 예방접종 하세요"

야외활동 잦은 주민 접종 당부

군산시가 야외활동이 많은 주민들을 위해 신증후군 출혈열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군산시보건소는 군인 및 농업 종사자 등 야외활동이 빈번한 시민을 대상으로 신증후군 출혈열 예방접종을 7~9월 집중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증후군 출혈열은 한타바이러스에

의해 전파되며 주로 가을철 바이러스에 감염된 들쥐나 집쥐의 배설물이 호흡기나 상처 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신증후군출혈열은 발열, 출혈경향, 요통 신부전을 특징으로 하며 사망률은 과거에 비해 낮아졌지만 최근 2%로 아직도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신증후군출혈열 위험군에 대해 접종을 권장한다.

신증후군 출혈열 예방접종은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 후 12개월 뒤 추가로 1회 접종이 필요하며 평생 3회 접종을 하면 추가접종은 권장하지 않는다.

예방접종은 가까운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실시하며 비용은 1회당 8,200원(기초생활수급자 무료 접종)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보건소 예방접종실(063-460-3244)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푸드마트데이, 익산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기탁



익산시 신동에 위치한 푸드마트데이(대표 최원길)는 지난 16일 익산시청을 방문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새달라며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익산시 신동에 위치한 푸드마트데이(대표 최원길)에서 16일 익산시청을 방문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새달라며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익산 푸드마트데이는 지난해에도 푸른익산가꾸기에 1000만원과 백미 80포(시가 200만원 상당)를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많은 귀감이 된 바 있다.

매년 정기적으로 기부를 이어가는 최원길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기운을 북돋아 주고 싶다"면서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나보다 어려운 이웃에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면 코로나19를 이기는 행복 바이러스가 퍼져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현을 이사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웃사랑 실천에 적극적인으로 나서 주셔서 큰 힘이 된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익산=정왕원 기자

군산시 나운2동 '착한가게 챌린지' 호응

제주 돈대감 방문, 현판 전달

나운동에서 꾸준히 착한가게 사업이 이어지며 착한가게 챌린지가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 나운2동은 16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제주돈대감을 방문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주돈대감은 제주에서 나운동으로 5년 전 이주해 터전을 마련한 음식점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왔다.

돈대감 김영두 대표는 "나운동 착한가게 챌린지 도전! 보도를 보고 감동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지역에서 가게를 운영해 발생한 수익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나운2동 고석권 동장은 "코로나 19로 모두가 어려움 속에서도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신규 업체의 동참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착한가게' 챌린지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착한가게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매달 3만원 이상의 일정 금액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는 것으로 모금된 기부금은 지역내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된다.

/군산=김판곤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익산 노인여가복지시설 단계적 운영 재개키로

익산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지난 2월말부터 약 4개월째 휴관 중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단계적으로 운영 재개한다고 밝혔다.

먼저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모현동), 남부권노인복지관(인회동), 황등권노인복지관이 오는 20일에 운영을 다시 시작하고 경로당 77개소는 27일부터 문을 열기로 했다.

익산시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방역물품을 사전에 구비하였으며,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운영 방침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에 감염책임자, 방역관리자 지정·관리로 자체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자체 대응 매뉴얼에 따른 운영 재개에 민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코로나19 고위험군에 속하는 고령자임을 감안해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 일정거리두기, 방문자 일지 작성을 일상화한다.

/익산=정왕원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